

2009년도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귀국보고서



성 동 구 의 회

중국의 자매결연지 회유구를 다녀와서

● 연수목적

강대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중국의 발전상을 경험하고 자매결연 도시인 회유구와의 긴밀한 우호 교류를 통해 의회제도의 체험 및 협력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연수국가

중국(북경시 회유구)

● 연수자

성동구의회 김복규 의장 외 13명

● 연수기간

2009. 9. 7 ~ 9. 12

● 연수주요일정

≪ 2009. 9. 7 : 북경

- 인민정부 방문
- 인민의회 방문

≪ 2009. 9. 8 : 북경, 상해

- 영화세트장, 만리장성 (인민정부 인솔)

≪ 2009. 9. 9 : 상해

- 상해 포동구청 방문
- 임시정부청사 방문

≪ 2009. 9. 10 : 상해, 서안

- 상해 재래시장 견학

≪ 2009. 9. 11 : 서안

- 문화탐방지 견학
- 교통 및 도시디자인 견학

≪ 2009. 9. 12 : 인천도착

● 작성자

김복규(성동구의장)

어렵게 결정한 중국길

귀국길, 비행기에 오르며 비록 흐린 날씨였지만 중국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서안(“장안”으로 잘 알려짐)공항에서 바라본 중국의 모습은 광활한 대지만큼이나 커다란 그들의 기개와 웅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새삼스레 느끼며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

지난 6일간의 일정이 한편의 시나리오처럼 지나간다. 대부분의 중국은 우리의 70년대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 북경은 현재의 서울과 흡사하고 상해의 높이 솟은 마천루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자매결연지인 회유구는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그들을 보았으며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마땅히 내놓을 만한게 없었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컸다.

지난 8월 북경시 회유구 인대 상임위 주임 오덕중(인민의회 수장)의 방문 요청에 우리 구의회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수락을 심각하게 고민하였다. 하지만 1996년 자매결연 이후 한 번도 답방요청에 응하지 못했던 사실과 강대국으로 성장해 가는 중국의 모습에 배울게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렵게 방문을 결정했다.

주요일정

[1일]

1. 북경시 회유구 인민정부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 도착하니 구청 관공실 부주임인 과홍빈씨와 몇몇 직원이 마중나와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를 회유구장으로 안내하였다.

중국의 지방행정조직은 자치구와 직할시로 나뉘는데 북경은 4개의 직할시중 하나이며 직할시는 구와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장은 구 인민대표회의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이고, 인민정부는 집행기관으로 우리의 구청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환영행사장에 들어가니 지유생 구장을 비롯하여 낯익은 얼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지만 꽤 친한 친구처럼 대하여 서로의 관심사와 안부를 묻고 다정히 인사했다.

회유구는 면적 2,128km², 인구 30만으로 북경시 북쪽 50km에 위치해 있으며 산악지대가 전체 면적의 88.7%를 차지하고 있다. “북경의 후원(後園)”이라 불릴 정도로 휴양지로 인기가 높고 광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회의실로 안내되어 시작된 공식행사는 은복실 운영위원장의 성동구의회 의원 소개, 지유생 구장의 환영사, 답례사, 회유구 홍보영상물 상영, 간담회, 기념품 교환 등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회유구 관용차의 대부분이 현대에서 제작한 소나타라며 자매결연을 맺은 성동구 덕분에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집에서 텔레비전만 켜면 나오는 한국드라마를 보면서 식구들에게 한국자랑도 많이 늘어놓고 있다는 등 격의 없는 담소의 시간을 가졌다.

그들은 틈틈이 우리의 소식을 접하고 있으며, 우리구의회 홍보영상물을 보면서 한국을 방문했던 추억을 생각한다고...

아울러 그들은 짧은 기간 고속 성장한 우리의 모습에 경의를 표하며 작지만 배워야 할 국가라며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 인민정부에서의 환영행사



▲ 환영사를 하고 있는 지유생 구장



▲ 지유생 구장에게 기념품 전달



▲ 지유생 구장과의 기념촬영

2. 중국 북경시 인민의회

인민정부를 나와 우리의 의회와 유사한 인민의회로 향했다.

중국의 인민의회는 지방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 의회와 유사하지만 500명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관내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 결정하며 지역 내의 인민 정부와 기타 행정 사법 기관을 구성하는 동시에 상부 인민대표대회와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장고한 역사를 지닌 두 나라는 정치제도와 문화의 현격한 차이로 직접 비교는 힘들겠지만, 넓은 면적에 56개의 민족과 12억 인구를 아우르는 그들의 힘은 풀뿌리 민주주의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잘 정비된 연유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인민의회 청사에 도착하자 오덕중 인대주임과 의원들 그리고 직원들이 청사 앞까지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오덕중 인대주임(인민의회 수장)과 콕문청 인대 관공실 부주임은 올 초에 우리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오래 전부터 교류가 있어서인지 어떤 의원과는 반갑게 껴안으며 우의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한참을 청사 앞에서 환담을 나눈 뒤 의회 직원의 안내를 받아 회의실로 올라간 우리 일행은 인민정부와 비슷한 순서로 공식행사를 진행했다. 시종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간의 궁금한 점을 묻고 답하였는데, 인민정부에서와는 달리 서로 간에 비슷한 역할과 여건에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인지 가끔씩 농담도 주고 받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2008년 8월 8일 열린 북경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른 중국답게,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

그들은 8개의 탁자를 배치하는 등 행사 내내 사소한 의견에도 신경을 쓰며 우리를 깎듯이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격의 없는 대화로 힘들었던 여정이었지만 즐겁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었다.



▲ 일행을 반갑게 맞이하는 오덕중 주임



▲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치루어진 공식 행사



▲ 오덕중 주임에게 기념품 전달



▲ 기념촬영

3. 환영만찬

회유구에서는 우리의 숙소인 진안호텔에 환영만찬을 준비해 주었다. 만찬장에는 오덕중 인대주임과 간부의원들, 자유생 구장과 구 간부들이 함께 하였다. 만찬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성동구의회방문단 열렬 환영’이라는 플래카드를 보며, 그들의 환대에 왠지 모를 뿌듯함이 느껴졌다. 오덕중 인대주임의 만찬사와 나의 답사가 끝난 후 바로 만찬에 들어갔는데, 우리 구의원들도 스스로 없이 있었지만 회유구 측에서는 마치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열렬하게 우리 일행들을 환영해 주었다. 대륙의 자존심 내지는 호탕함인지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우리구에서 대접받은 것 이상으로 융숭하게 대접을 해주려고 하는 마음이 느껴졌다.

만찬장에 마련된 술이 상당한 독주였는데 그들은 취하지도 않는지 의원들과 직원들이 계속 번갈아가며 건배제의를 해서 약간은 힘든 와중에도 기분만은 흐뭇하였다.



▲ 성동구의회방문단 열렬 환영



▲ 답사



▲ 자유생 구장의 건배제의



▲ 화기에애한 분위기의 환영만찬

[2일]

1. TV 영화세트장

둘째날에는 회유구 인민정부 과홍빈씨와 직원들의 안내로 회유구의 명소를 둘러보았다. 회유구에는 동양 최대 규모의 TV 영화세트장이 있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수만평은 족히 넘는 세트장에는 중국의 옛거리도 정교하게 재현되어 있어 그 규모와 세밀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는데 시설물을 둘러보는 데에도 레일버스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거대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촬영이 끝날 때마다 건물을 철거한다고 하니 시설물의 낭비만은 막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트장은 주로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해당 지자체의 후원으로 세트장을 짓고 장기간 관광지로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여하에 따라 그 수입이 천양지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에는 여건상 세트장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구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시 왕십리광장, 서울숲, 청계천 등을 잘 활용하면 홍보에도 좋을 듯 싶다. 또한 최근 영화나 TV에서 공무원 및 공공청사가 관심을 많이 받는 만큼 우리 의회도 문의가 들어온다면 외부에도 적극 개방할 생각이다.



▲ 세트장에 재현된 중국의 옛거리



▲ 여러동의 세트장 건물

2. 만리장성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불리는 거대한 유적지 만리장성!
 만리장성은 원래 북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만리장성에 가보지 않으면 호한이 될 수 없다(不到長城非好漢)라는 말이 있듯 끝없이 펼쳐진 만리장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웅장한 호연지기를 느낄 수 있다는 회유구 직원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장성 위에서 구불구불 기복이 심한 산세를 따라 멀리까지 뻗어있는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있으면 감탄이 절로 나오지만 세계에서 가장 긴 무덤이라는 말처럼 축성하기 위해 이름 없이 사라진 수많은 영혼들의 피와 땀의 소산이라는 생각에 씁쓸한 여운도 남았다.



▲ 만리장성의 모습



▲ 만리장성 앞에서

3. 회유구를 떠나며

먼저 국민들의 습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흔히 중국을 “만만디”라 부른다. 넓은 땅에 대륙적인 기질로 매사에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고 해서 붙여진 말로 한창 개발 중에 있는 나라인 만큼 방문 취지를 살려 도로 등 기반시설물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하지만 도로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 신호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놀랐다. 사고가 날 것 같은 모습도 비일비재했지만 특이하게도(?) 사고 장면은 한 번도 보질 못했다.

언뜻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지만 알아서 잘 피해가는 모습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였으니.... 아마도 서두르지는 않되 내 갈길 내가 알아서 가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모로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북경의 경우 도로의 2개 차선 정도를 화단으로 구분하여 인도쪽 차선은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그곳으로 자전거가 다니고 있었다. 땅이 워낙 넓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니 부러운 마음이 드는 한편, 가뜩이나 교통난이 심각한 우리 나라에서는 똑같이 시행하기는 힘들겠지만 도로와 인도의 공간을 어느 정도 절충하여 자전거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도에 있는 공중전화부스가 독특했다. 긴 폴대를 가운데 두고 4개의 공중전화가 비만 피할 정도의 플라스틱 덮개아래 놓여 있었는데 아름다운 도시디자인거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에서도 약간만 변형하면 멋진 시설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면적도 크게 차지하지 않으면서 멋있게 디자인한 덮개로 장식한 부스에 공중전화는 물론 현실에 맞게 핸드폰 급속충전기, 교통승차권 발매기 등을 설치하면 어떨까.



▲ 자전거도로



▲ 공중전화 부스

[3일]

1. 상해시 포동구 방문

6,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상해의 총면적은 6,184km²이며, 1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중 640만 명은 도시의 외곽 지역에서 살고 있다. 역사 속에서 중국의 어떤 도시보다 서양의 문물을 빨리 그리고 쉽게 받아들인 곳이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도시와는 색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로 수많은 관광객도 유치하고 있다.

동방의 파리로 불리는 상해는 양쯔강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로 세계에서 가장 고층건물이 많은 곳이자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곳이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발전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상해는 우리 서울과 건축물 및 경관에서 크게 다른 모습이었다.

상해의 고층빌딩들은 다양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장려하는 시 정책에 의해 기발한 디자인으로 상해 스카이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상해에는 다른 곳과 똑같은 디자인의 건물을 지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개도 똑같이 생긴 건물이 없다고 한다. 실제로 건물을 살펴보니 각각의 건물들이 모두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과거 조계지로서의 흔적이 남아있는 외탄과 황푸강 바로 건너편 들쭉날쭉 솟은 현대적 고층빌딩은 상해의 과거와 현재를 강 하나사이로 이어주는 듯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반면 상해의 교통난은 서울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도로에 분명 신호등이 있음에도 신호는 거의 무의미했다. 차량도 사람도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기에 어느 곳이나 복잡하고 정체가 심했다. 주변 경관은 너무나도 선진화 되어있지만 시민들의 의식은 아직 후진적이라는 모순에 약간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혼돈속의 질서라고나 할까... 사고가 나는 것도 거의 볼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경적을 울리거나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면서 중국인들은 참으로 여유로운 국민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상해시 포동구에 도착한 우리는 홍보 담당 직원의 안내로 홍보관에 들러 포동지구의 발전상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관람하고 직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포동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직원의 자신감에서 오늘날 중국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었다.

황푸강의 동쪽에 자리잡은 포동은 상업 및 금융중심지로 알려져 있어 세계의 저명한 재단과 다국적 기업 그리고 은행 등 110여개의 금융기관이 들어서 있으며 300여개의 자동차 및 통신업체와 3,000여개의 무역회사 등 다국적 물류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2010년 세계도시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다시 한번 도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 포동구 홍보 담당 직원의 브리핑



▲ 포동구청 앞에서



▲ 상해의 마천루



▲ 상해의 마천루

2. 임시정부청사

상해 마당로에 자리잡고 있는 임시정부청사는 1926년부터 32년까지 6년간 머물렀던 곳으로 현재 3층으로 된 벽돌집에 마당까지 포함해 20여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보존되고 있는데 그나마 한국의 독지가들의 성금으로 복구되었으며 상해시 여행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구조는 1층은 회의실, 2층은 집무실 및 침대, 3층은 요인숙소와 전시관으로 임시정부 당시의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1층에서 임시정부청사의 운영과 옛 독립운동 모습을 보여주는 동영상 관람한 뒤 2층, 3층으로 이동하며 청사를 둘러보았다.

2010년 상해세계엑스포를 맞아 상해정부에서 이 일대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 새로이 개발할 예정에 있어, 조그만 골목길안의 퇴색된 주변의 여느 집처럼 초라한 이곳이 그나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나라 독립의 모태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신적·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이곳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독립기념관 일부에 임시정부청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임시정부청사를 견학하고 나서 저녁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황포강과 동양 최대 높이라는 동방명주를 견학 하였다. 동방명주는 우선 그 외관의 모습을 특이하게 설계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안에 관광, 오락시설, 전망대, 회전식당, 호텔 등 수많은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마련해 놓았다. 이곳을 보고나니 우리나라의 63빌딩, 코엑스, 남산타워 등은 이에 비하여 너무 평범하고 시설에 있어 투자도 덜 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서울

시에서도 이러한 시설들을 벤치마킹 한다면 관광객을 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 동영상 관람



▲ 임시정부청사 전경



▲ 청사 입구



▲ 상해의 명물인 동방명주

[4일]

1. 상해 재래시장 방문

우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추진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꼭 가보고 싶은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도 엑스포 준비로 대부분의 시장이 폐쇄되어 남아 있는 곳이 거의 없어 부득이 외곽의 한 곳으로 안내받았다.

관광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것이었는지 천안문 광장을 본뜬 입구를 설치해 일단 손님을 유혹했다. 시장 안에는 많은 물건을 진열해 놓았으나 길거리에는 물건을 늘어놓지 않아 정돈된 모습도 보여주었다.

없는데 없다는 중국의 재래시장처럼 과일, 야채 등 다양한 물건이 놓여 있었으나 고기 종류는 판자에 놓고 실온에서 판매하는 모습이 특이했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우리와 달라 괜찮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했지만...

어제 보았던 화려한 상해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듯 보이면서도 체계적이고 정돈된 모습의 재래시장, 하지만 사람 사는 모습에 색다른 즐거움을 느끼며 서안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 화려한 상점의 모습



▲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의 이정표



▲ 깔끔한 좌판대



▲ 고기 상점

2. 상해를 떠나며

낮에 본 상해의 건물 중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성냥갑 같은 건물은 없었다.

포동구의 경우 도시계획국이란 곳에서 건물의 모습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건물은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먼저 법 개정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건축허가 시 디자인 심의를 다양화할 필요성을 느끼는 대목이다.

그동안 천편일률적이었던 우리의 수변경관은 지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어 머지않아 독특한 모습을 뽐내리라 생각하며, 머지않아 우리구 삼표레미콘 부지에 들어설 110층 랜드마크가 현실화된다면 주변경관과 수요도 충분히 고려해 지어야 할 것이다.

[5일]

1. 중국의 역사탐방

진시황릉과 진시황 병마용, 화청지 등을 둘러보며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북경과 상해에서는 맑은 날씨가 계속됐지만, 서안으로 넘어오니 아침부터 계속 비가 내려 여러모로 답사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진시황릉은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에 독특한 구조, 그리고 내용이 풍부한 황제릉의 하나로 동서 485m, 남북 515m, 높이 약 76m로 시황제 즉위 초부터 착공되어 통일 이후에는 70여만 명이 동원되어 완성되었으며 내부에는 수은으로 강과 바다를 만들고 천상과 지상을 모방한 지하 궁전에 도굴자가 접근하면 화살이 자동발사하는 시설도 갖추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능의 내부에는 들어갈 수 없으나 주변을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미니 전동카나 마차로 주위를 돌거나 주변의 유물을 구경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나마 관광객을 배려한 것 같았다.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병마용 갯은 심한 가뭄으로 우물을 파던 농부에게 발견된 것으로 총면적 25,380㎡에 달하는 4개의 갯이 발견되었다. 도자기로 된 병사와 말이 8천여점, 목제 전차 100여대, 청동병기 4만여점이 있다.

웅장한 군사진영에 한번 놀란 우리는 출토된 6천여점의 병사 도자기용이 진짜 사람모양 크기이고 얼굴모습이 같은게 하나도 없다는 말에 한번 더 놀랐다.

중국인들은 아직 병마용 갯의 일부만 발굴하고 나머지는 발굴치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만만디 근성일수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자부심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

각도 들었다. “우리의 문화유산은 무궁무진하며 그것을 한꺼번에 전부 밝히기 보다는 미지의 세계로 남기고 싶다.”라는...

한편, 가이드는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우리 일행에게 해주기도 했다. 진시황제가 타국인의 눈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잔인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이런 많은 문화유산을 남겨 후손들이 관광수입을 통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한다는...

조금은 억지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으로 그들의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문화유산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 화청지 전경



▲ 발굴된 병마용



▲ 아직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은 병마용



▲ 병마용 모형

2. 서안 시내탐방

고대 성벽으로 둘러싸여 색다른 모습을 보여준 서안의 교통 및 도시 디자인 실태를 보기 위해 마련한 일정으로 우리에게는 장안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도시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중국의 다른 도시와는 정말 다른 느낌이었으며 도시계획 면에서 볼때 전체적으로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교통이 편리해 어디든 찾기 편한 곳이었다. 다만 지하철 공사와 불법 주정차가 심해서인지 교통 정체는 심한 편이었다.

도로변을 보니 간판이 건물과 유리창에 큰 글씨로 새겨져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너무 커서 깔끔해 보이지는 않았다. 전국에서 가장 멋있게 추진되고 있는 성동구의 간판정비모습과 비교하면 중국이 배워가야 할 듯....

교통신호 안지키기로 유명한 중국이지만 넓은 도로의 경우에는 대부분 준수하는데 교통신호 등에 숫자표시판이 달려 있어 파란 신호와 함께 숫자가 카운트되어 다음 신호가 표시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준다. 다시 일정숫자로 내려가면 황색등이 함께 켜져 멀리서 달려오는 차는 숫자를 보며 스스로 정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거의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숫자표시판을 보며 우리도 이를 도입하면 운전자들은 다음 신호로 바뀌기까지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어서 훨씬 편안하고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고,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아 차량들이 속도를 많이 내는 도로에서도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어수선히 보이는 간판



▲ 서안의 신호등

[6일]

1. 서안의 아침

거리마다 약간 다르지만 중국의 도로는 교통량에 비해 도로폭은 넓지 않은데 그나마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가 화단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다소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도시에서의 아침마다 느끼는 모습이지만 엄청난 숫자의 자출족(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의 장관이야말로 또 하나의 볼거리였다.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 자전거는 남녀노소, 의상불문 자유롭게 즐기는 교통수단이었으며 중국 대부분의 도시가 그렇듯 도로가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그야말로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에는 최적이지 싶었다.

우리도 최근 자전거가 녹색교통 수단으로 각광받고는 있지만 구릉지가 많고 끊기는 도로흐름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힘든 현실을 감안하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대부분의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마련할 정도로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우리가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수후기

어려운 결정 끝에 선택한 중국 회유구 방문길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고 있는 성동의 미래를 되새겨 보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세계 경제순위 2위인 중국과 3위인 일본에 둘러 쌓인 우리는 비록 작고 가진게 없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지만 엄청난 교육열과 근면성으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다.

하지만 이 자리에 만족하며 조금이라도 뒤쳐지는 순간에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국제사회에서 언제 추락할지 모를 일이다.

새장에 갇혀 지낸 새는 창공을 모른다는 심정으로 다녀온 이번 교류방문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금융위기에도 끄떡없던 중국의 저력에 적잖이 놀랐다.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 엄청난 도시 리모델링을 추진한데 이어 도시엑스포를 준비하며 또다시 리모델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숨가쁘게 이어진 바쁜 일정이었지만 이곳 저곳을 다니며 느끼고 생각한 것을 벤치마킹한다

면 분명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방문길에 참여한 의원 모두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건축디자인, 가로디자인, 자전거도로, 교통신호체계 등등
똑같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정책에 도입할 만한 것들은 무궁무진하다.

“바깥 세상을 경험하는 것은 새로운 풍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데 있다.” 라는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처럼 매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새로워졌음을 느낀다.